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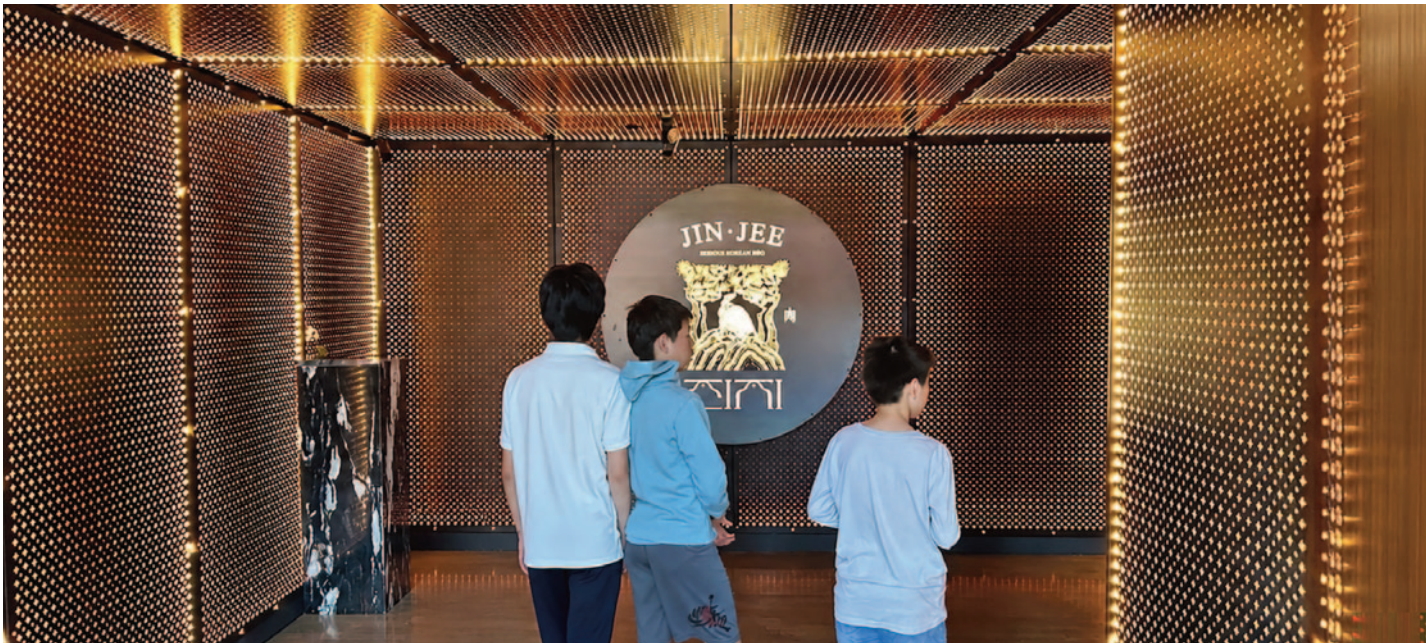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울스턴 브라이트 애비뉴에 고급 한식고기구이 전문점 '진지'가 산바다 바로 옆에 4월 말 약식 오픈했다. 사진은 진지의 출입구 모습

보스톤 고급 한식 고기구이집 '진지' 오픈...메뉴 · 가격 · 주문법 총정리

산바다에 이어 진지로 연타석 홈런, 보스톤 새로운 한식 바람
직원이 직접 구워주는 와규 · 헤리티지 돼지고기 메뉴가 특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산바다에 이어 '진지(JInji)'가 보스톤에서 새로운 한식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보스톤의 작은 코리아타운 울스턴에 들어선 고급 한국식 고기구이 '진지'가 지난 4월 하순부터 약식

으로 문을 열어 산바다에 이어 연타석 홈런을 날리고 있다.

뉴욕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급 한국식 바베큐를 이제 보스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자는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전체 기사 읽기〉

한국식 고기 바비큐집인 진지는 모든 구이 고기를 진지 직원들이 모두 구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훈련받고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다.

진지의 주요 패키지 메뉴는 일본 와규와 어메리칸 와규로 구성된 '수라', 어메리칸 와규와 어메리칸 헤리티지 돼지고기로 구성된 '진지', 그리고 어메리칸 헤리티지 돼지고기로

이뤄진 '반상' 세가지이다.

와규로만 구성된 '수라'는 저녁식사가 1인당 90달러, 점심이 70달러다. '진지'는 저녁식사가 60달러, 점심이 45달러이며, '반상'은 저녁이 45달러, 점심이 30달러다.

한테이블당 인원 모두가 수라, 진지 등 메인 메뉴 3개 중 하나를 선택해 일괄적으로 주문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방문할 경우 1명은 수라, 2명은 반상으로 주문할 수 없다. 3인 모두 수라, 혹은 반상으로 통일해서 주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고기가 1인당 개별이 아닌 모듬으로 나오고 또 직원이 동시에 구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진지의 김혁 사장에 따르면 14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하여, 3개 메뉴 중 하나를 주문해야 한다. 다만 13세 이하는 패키지 메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외식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정책이다.

만약 패키지로 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패키지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들을 저렴한 가격에 추가 주문할 수 있으므로 가족단위로 방문하는 경우 가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곽주현 사장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추가 메뉴는 안창살과 양념갈비다. "특수한 레시피로 만든 양념갈비는 부드럽고 맛이 좋으며 값도 저렴해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안창살은 때로 주문을 모두 소화하기 전에 떨어질 정도다.

고기에는 술이 빠질 수 ▶▶12면으로 계속

한국 서예의 대가들 보스톤에 집결...백우동인회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50주년 기념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세인트폴 성공회교회, 30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서 전시회
한문 정통 서체, 한글 서예, 사군자, 문인화, 전통 공예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 서예와 한국화, 문인화의 종진 · 원로 작가들이 보스톤에서 이례적인 전시회를 연다. 백우동인회 창립 50주년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초대전 '백우동인전'이 오는 5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개최된다.

전시는 두 곳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5월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는 브루클라인의 세인트폴 성공회교회(St. Paul's Episcopal Church, 15 St. Paul's St, Brookline, MA 02446)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25일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막식과 오프닝 커피 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날인 5월 30일 토요일에는 뉴튼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로 자리를 옮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시가 이어진다. 전시회는 별도 입장료가 없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한국 서예의 품격을 관람할 수 있다.

백우동인회는 1976년 경상대학교 서예 동아리 '백우회'에서 출발했다. '하얀 종이 위에 우정을 나눈다'는 뜻을 담은 이름으로, 대학 시절 붓을 함께 들었던 학생들의 모임

〈전체 기사 읽기〉

에서 시작됐다. 이후 학내 동아리로 34년간 명맥을 이어오다 해산됐고, 졸업생들이 다시 모여 지금의 백우동인회로 새롭게 결성했다.

백우동인회는 서예를 중심으로 한국화, 문인화 등 전통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마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도 같은 해에 출범해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으면서, 두 기 ▶▶13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K-컬처의 종착역은 한반도 평화"... 보스턴 K-피스 페스티벌 성료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주최, 우천에 월담 새빛교회에서
청소년 평화 연설, 전통 무용 그리고 K팝 무대 어우러져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보스턴협의회가 주최한 '2026 보스턴 K-피스 컬처 페스티벌(2026 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이 지난 9일(토) 월담 새빛교회에서 열렸다. 행사는 당초 보스턴 카플리 스퀘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비로 인해 월담 새빛교회(730 Main St, Waltham)로 장소를 옮겨 치러졌다.

주최 측에 따르면 장소 변경에도 불구하고 약 200여 명이 모여 자리를 채웠다. 참석자의 절반 가까이가 한인들이 아닌 미국인들이었으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 관객도 있었다.

전통 무용부터 K팝까지, 무대 위 평화의 하모니

행사는 '아리랑 합창'과 방탄소년단(BTS) 음악을 어우른 리믹스 그랜드 오프닝으로 막을 올렸다. 주최 측이 나눠준 응원봉을 흔들며

관객들이 무대와 함께 호흡했고, 노스이스턴 대학교 K팝 댄스팀과 베이커 스쿨 K팝 팀 학생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이어 한국 전통 공연이 이어졌다. 디딤춤 팀은 번영과 평화를 기원하는 '태평무'를 선보였고, 베이커 스쿨 학생들은 '부채춤'으로 한국적 색감과 곡선의미를 표현했다. 행사 마지막은 아리랑과 날리리아 팀의 '난타' 공연이 장식했다.

청소년 13명의 평화 연설... "총 대신 응원봉을 들자"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공감을 얻은 순서는 공연 사이에 진행된 '청소년 평화 연설'이었다. 한인 초·중·고등학생들과 비한인 학생 등 모두 13명이 8개의 연설을 이어갔다.

이란에서 이주해 온 한 학생은 "이란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다르지 않다"며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전쟁의 공포 대신 K팝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해 감동을 전했다.

다른 학생들은 "우리의 손에 총 대신 응원봉을 들자"며 70년 넘게 이어진 한반도 휴전 상태를 끝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음악, 노래, 춤을 통한 소통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한 학생은 연설 도중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진심을 담아 부르며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시작임을 알렸다.

행사장에서는 모든 참석자에게 김밥이 제공돼 한국의 음식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큰 인기를 끈 부스는 '평화 메시지 및 설문' 코너였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설문에 참여한 이들에게는 한과·약과 등 한국식 디저트와 함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호랑이 키링'이 선물로 증정됐다.

"K-컬처는 결국 K-피스로 완성된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측은 "K-컬처는 결국 K-피스로 완성된



우천으로 인해 월담 새빛교회로 옮겨져 개최된 평통 보스턴협의회 '보스턴 K-피스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아래= 베이커 스쿨 학생들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다"며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EOUL SAL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 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서울설렁탕
SEOUL SALLONGTANG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MART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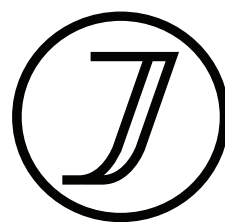
929.600.4880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전화주문 서비스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 5월 16일 봄 음악회...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다"

헨델부터 거슈윈, 코른골트, 이은지 신작초연까지... 4세기를 가로지른 '사랑' 한 다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인교회 가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해온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Oasis Music Series)가 오는 5월 16일(토) 저녁 7시 봄 음악회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다(To Gather in Love)'를 연다. 부제는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음악 한 다발(A Bouquet of Music from the 18th to the 21st Century)'이다.

이번 공연은 4세기에 걸친 음악을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한다. 바로크 시대 헨델에서부터 낭만주의의 브람스와 멘델스존, 20세기 거슈윈과 코른골트, 그리고 동시대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가 한 무대에 오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작곡가 이은지의 비올라·첼로를 위한 신작 '에메랄드 시(Emerald Sea)'의 초연이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 새롭게 쓰여진 이 곡은 보스톤 지역 청중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거슈윈의 친숙한 멜로디는 사랑의 설렘과 기쁨을 담아내고, 나치를 피해 할리우드로 망명했던 작곡가 코른골트의 아리아는 망명 작곡가의 삶이 녹아든 애잔한 감정을 전한다. 서로 다른 시대와 음악 언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무대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음악으로 감정과 순간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공연에 이어 이번에도 마지막 순서에 래플(affle)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오아시스 뮤직 시리즈는 보스톤과 브루클라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스톤한인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지역사회 봉사(community outreach) 프로



그램이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을 나누려는 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무대를 꾸민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이때, 빛과 따스함을 나누는 봄 저녁 음악회에 보스톤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교회는 전했다.

- ▶ 공연명: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이다(To Gather in Love) - 18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음악 한 다발
- ▶ 일시: 2026년 5월 16일(토) 저녁 7시
- ▶ 장소: ECC 채플(보스톤한인교회 내),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 ▶ 입장료: 무료 (사전 등록 권장 - Eventbrite)
- ▶ 문의 및 등록: www.ecckcb.org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2026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개최

6월 13일 월담서 뉴잉글랜드 5개 주 5~12학년 대상... 5월 12일부터 신청 접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

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보스턴협의회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2026년 청소년 평화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13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월담 새빛교회 내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회의실(730 Main Street, Waltham, MA 02451)에서 열린다. 매사추세츠(MA), 로드아일랜드(RI), 메인(ME), 뉴햄프셔(NH), 버몬트(VT) 등 뉴잉글랜드 5개 주에 거주하는 5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이 참가대상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퀴즈 대결을 넘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예상 문제 등 학습 자료는 접수 마감 후인 5월 하순경 모든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대회의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0달러, 우수상 1명에게는 200달러, 장려상 3명에게는 각 1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된다.

<전체 기사 읽기>

참가신청은 5월 12일(화)부터 5월 20일(수)까지 받는다. 신청 링크는 <https://forms.gle/aWY7EFrPtybB2B1J8>이며, 문의는 이메일(nuac.boston.2025@gmail.com)로 가능하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한국 본선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은 본선 진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관계자는 "차세대 리더들이 통일 한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이번 대회에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6월 13일(토) 오후 1:30 ~ 4:30

장소: 730 Main Street, Waltham, MA 02451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회의실, 새빛교회 내)

대상: 뉴잉글랜드 5개 주(MA, RI, ME, NH, VT) 거주 5~12학년 학생

신청 기간: 2026년 5월 12일 ~ 5월 20일

신청 링크 : <https://forms.gle/aWY7EFrPtybB2B1J8>

문의: nuac.boston.2025@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HOSTED BY JIMMY LIANG OF JP FUJI GROUP
YOUNG LEADERS SCHOLARSHIP

STAND-UP *Comedy Night*



venmo



PERFORMANCE BY

HELEN HONG

SATURDAY, JUNE 6, 2026

DOORS OPEN @ 5:00 P.M.

ADAMS INN, 29 HANCOCK ST., QUINCY, MA

KOREAN COMMUNITY SPECIAL ADMISSION : SUGGESTED MINIMUM \$75

PAYABLE TO : KACL-NE, PO BOX 159, WESTBOROUGH, MA 01581

SUNSET BBQ DINNER & CASH BAR

한타바이러스 발생 크루즈선에 뉴햄프셔 거주자 2명 탑승 확인

MV 혼디우스호 발 국제 보건 비상사태... 현재까지 8건 감염 보스턴 여행 인플루언서도타 네브래스카 격리 시설로 후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치명적인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 뉴햄프셔주(NH) 주소를 둔 미국인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햄프셔주 보건복지부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두 사람이 현재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뉴햄프셔에는 머무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보건당국은 "이들이 뉴햄프

〈전체 기사 읽기〉

셔로 돌아올 경우 본인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조율하고자 연방 보건 당국과 협력 중"이라며 "현재 주민들에게 보건상 위험은 없으며,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뉴햄프셔 주소지의 두 사람은 5월 2일 첫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확인된 이후에도 MV 혼디우스

(MV Hondius)호에 남아 있던 미국인 17명에 속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7명 정도의 다른 미국인은 이미 그 전에 하선한 상태였다.

이번 사태는 네덜란드 회사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스(Oceanwide Expeditions) 소속 크루즈선 MV 혼디우스호가 지난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아(Ushuaia)를 떠나 남극과 남대서양 외딴 섬들을 도는 일정으로 출항하면서 시작됐다. 23개국 출신 약 15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배에 타고 있었다.

승객 가운데 첫 환자는 4월 11일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4월 24일 세인트헬레나섬에서 옮겨졌고, 동승했던 부인은 하선 후 이틀 만에 요하네스버그 병원에서 숨졌다. 선상에서 또 한 명이 사망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이다. 한타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2명, 나머지 1명은 조사 중이다.

WHO에 따르면 5월 8일 현재 의심 사례 2건과 확진 6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안데스 바이러스(Andes virus)로, 한타바이러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가 문서화된 종류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여행 인플루언서 제이크 로스마린도 이 배에 타고 있었다. 그는 11일 오마하에 위치한 네브래스카 의대(University of Nebraska Medical Center)의 격리 시설에서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미국으로 돌아온 17명의 미국인과 미국 거주 영국인 1명을 합한 18명이 모두 이곳 연방 격리 시설로 후송됐다. 이들 중 한 명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MV 혼디우스호는 5주 넘는 항해 끝에 10일 오전 5시 30분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섬의 그라나디아항(Port of Granadilla)에 도착했다. 카나리아 자치주 페르난도 클라비호 주지사가 코로나 19 당시 경험을 이유로 입항을 반대했고 테네리페 항만 노동자들도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진통이 있었

지만, 스페인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입항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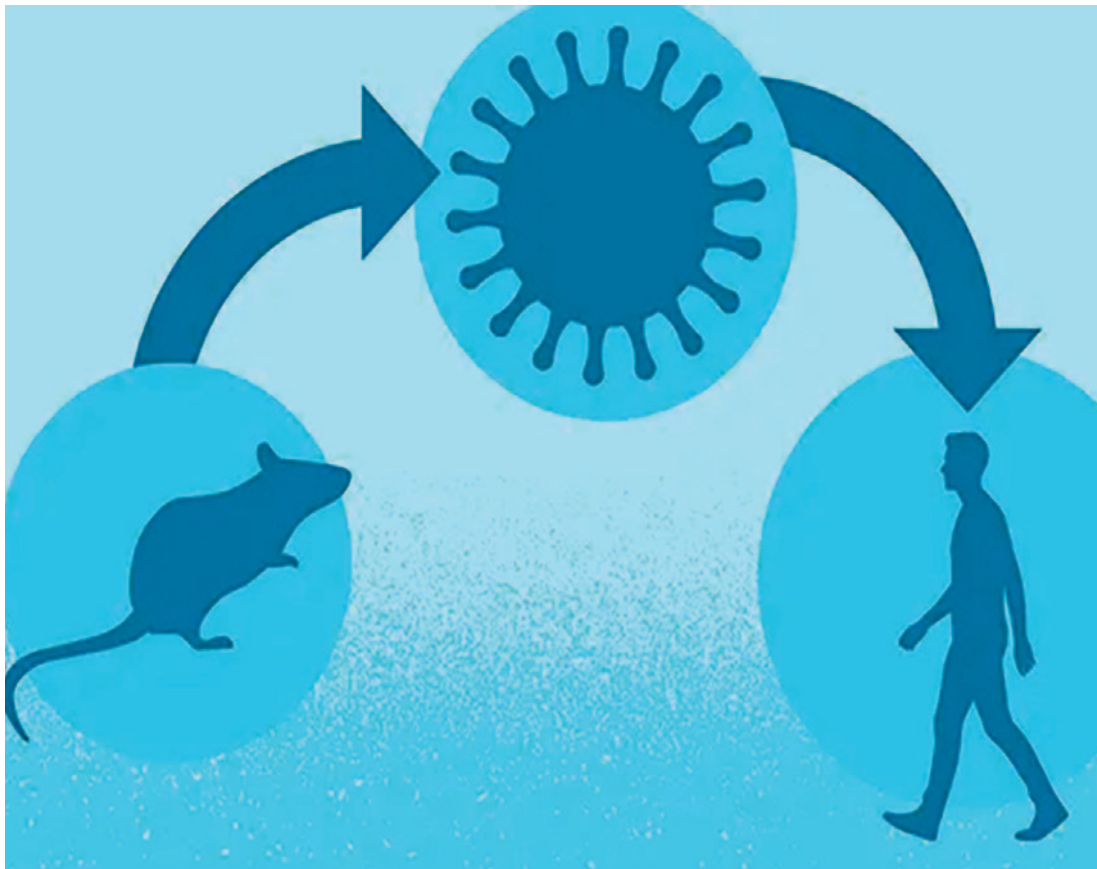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첫날 19개국 국적의 승객 94명이 하선했으며, 11일 마지막 그룹까지 모두 자국으로 귀국하거나 네덜란드로 옮겨졌다.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스에 따르면 승무원 35명과 승객 87명 등 모두 122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프랑스 승객 5명 가운데 1명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 모두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직접 테네리페에서 대응을 지휘하며 "이번 사태는 또 다른 코로나19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시민에 대한 위험은 낮다. 시민들이 두려워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타바이러스란

한타바이러스는 통상 감염된 설치류의 소변이나 배설물에 노출돼 감염되는 치명적인 희귀 질환으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인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바이러스 종류 중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종이지만, WHO는 전파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한국의 고 이호왕 박사가 발견했다. 그는 바이러스를 찾아낸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바이러스'라 명명했고 오늘날 한타바이러스 명칭의 유래가 됐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 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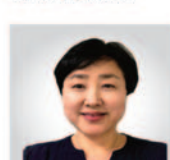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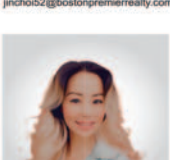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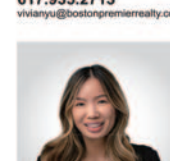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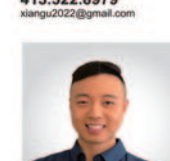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u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김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gin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gin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마사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ja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111@hotmail.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청년 인재들 보스턴 '5년 내 떠나겠다' 26%로 늘어

월세 중간값 2,918달러로 뉴욕·샌프란시스코 추월
보스턴상의 청년80%가 주거비 및 렌트비가 주 원인
렌트비 중간값 뉴욕, 샌프란시스코, LA보다 높아

【보스턴=보스턴코리아】한새벽 기자 = 치솟는 주거비를 견디지 못한 젊은 고학력 인력이 보스턴을 떠나겠다는 의견이 늘면서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레이터보스턴상공회의소재단(Greater Boston Chamber of Commerce Foundation)이 의뢰해 진행한 '2026 청년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스턴 도시권에 거주하는 20~30세 청년 가운데 26%가 향후 5년 안에 이 지역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역 생활 만족도 역시 가파르게 떨어졌다. 3년 전 89%였던 만족도는 79%까지 내려앉았다. 떠나려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78%가 렌트비를, 72%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점을 꼽았다.

특히 동북부 지역을 떠나려는 청년 가운데 거의 절반이 남부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사이트 리얼터닷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보스턴의 렌트

비 중간값은 월 2,918달러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주택 매물 가격 중간값은 83만 2,500달러로 전국 중간값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리얼터닷컴이 발표한 주별 주거비용 평가에서 매사추세츠는 가격과 신규 건설 모두에서 뒤처져 'F' 등급을 받았다.

리얼터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크 크리멜은 "보스턴의 청년들은 압도적으로 고학력 대졸자들이며, 노동시장과 창업·혁신 생태계, 그리고 지역 서비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스턴 임대시장 위기의 뿌리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젊고 교육받은 세입자에 비해 그들이 들어갈 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보스턴에서는 해마다 하버드와 MIT를 비롯한 명문 대학들이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더 이상 지역에 머물며 경제에 기여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전체 기사 읽기〉

상공회의소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지역이 주택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청년 거주자들이 인구학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두 주거 가용성과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며 "지역 지도자들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로 응답자들은 주택, 의료 접근성, 양질의 일자리를 꼽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또한 "경쟁 대상이 되는 다른 주들이 보스턴보다 저렴하다면, 렌트 또는 매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찾는 청년들에게는 그쪽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추진한 5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어포더블홈법(Affordable Homes Act)'에도 불구하고 매사추세츠의 주택 공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10만 채의 주택을 추진해왔다. 충분한가? 아니다"라며 "주 전역의 모든 지역사회가 주택이 지역 활력의 근간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곳곳서 봄철 곰 목격 늘어

5~6월 새끼 곰 독립, 짝짓기철 겹쳐 활동 활발

【보스턴=보스턴코리아】한새벽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매사추세츠 곳곳에서 흑곰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부 지역뿐 아니라 우스터 카운티를 포함한 주 중부까지 곰이 서식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우스터 카운티의 그래프턴과 슈루즈베리에서 경찰 및 소방관 등 응급 대응 인력이 곰 목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슈루즈베리에서는 어린 곰 한 마리를 마취해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이번 주 페이스북에 치코피(Chicopee, MA)에서 이웃집 쓰레기통을 뒤지는 곰을 봤다는 글을 올렸다.

매사추세츠 야생동물국(MassWildlife) 소속 흑곰생물학자 데이브 와틀스는 "사람들이 집 주변에 두고 있는 먹이 때문에 곰이 가정집에 출몰한다"고 말하고 "새 모이통을 치우고 쓰레기를 잘 보관해 곰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매사추세츠에 서식하는 유일한 곰은 흑곰(black bear)이며, 주 전체에 약 4,5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와틀스 박사는 매사추세츠 서부로 갈수록 곰의 밀도가 높아지며, 이들 곰이 "마늘에 완전히 통합돼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곰 한 마리의 활동 반경은 수많은 주택가를 포함한다. 곰들이 말 그대로 이런 동네 안에서, 또는 바로 옆에서 살면서

사람들 가까이 오면 시간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5월과 6월은 곰 목격 신고가 가장 많은 시기다. 1살이 된 어린 곰들이 어미로부터 독립해 새 영역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이다. 와틀스 박사는 "이제 어린 곰들이 들관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동 과정에서 더 자주 눈에 띈다"며 "여기에 짝짓기 철까지 다가와 매사추세츠 곰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곰을 마주쳤을 경우 와틀스 박사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곰을 위협해 쫓아내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곰들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는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 행동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당에 있는 흑곰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공격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흑곰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크고 힘센 동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마을이나 주택가에서 곰을 보면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의 경우 곰은 스스로 숲으로 돌아간다. 다만 인구 밀집 지역에 곰이 나타났을 때는 환경 경찰(1-800-632-8075)이나 가까운 매사추세츠 야생동물국 지역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턴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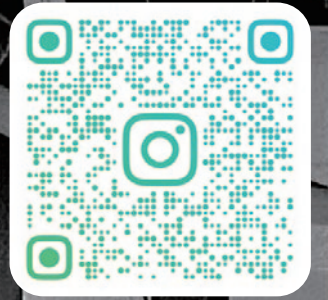
보스턴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케임브리지 총격범, 정신병원 퇴원 3일 만에 60발 난사

PTSD · 우울증 진단 46세 타일러 브라운, 가석방관에 자살 시사
관대한 형량...사법체계 '경고 무시' 책임론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는 지난 11일 케임브리지 메모리얼 드라이브에서 60여 발을 무차별 난사해 운전자 2명을 중태에 빠뜨린 용의자가 사건 사흘 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건 발생 2시간 전부터 가석방 담당관에게 자살 시사 발언과 함께 반자동 소총을 흔드는 모습을 화상통화로 보였으며, 경찰이 그를 추적하는 사이 결국 그는 도로 위에서 무차별 총격을 벌였다.

12일 WBUR, CBS 보스턴, 보스턴 글로브 등 현지 언론은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에 제출된 매사추세츠 주 경찰 보고서와 형사 기소장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 타일러 브라운(46)은 지난 8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벨몬트에 있는 정신병원 맥린 병원(McLean Hospital)에서 퇴원한 상태였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

미들섹스카운티 검찰은 브라운에게 살해 의도 무장 폭행 2건, 무허가 총기 소지, 대용량 화기 소지, 화기 사용 폭행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현재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총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2시간 전, 같은 월세 집 거주자가 "정신이 나갔다" 신고

사건 당일인 11일 오전, 브라운과 같은 월세 집(Rooming house)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가석방 담당관에게

"브라운이 전날 밤 내내 술과 약물에 취해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가석방 담당관은 정오 무렵 브라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상태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브라운은 자살 시사 발언을 했고, 가석방 담당관은 즉시 911에 신고한 뒤 상 관에게 보고하고 브라운의 도체스터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2시 8분경 브라운은 다른 전화번호로 가석방 담당관에게 페이스 타임 화상통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닌 부엌으로 보이는 곳에서 반자동 소총을 흔들며 "이 사람들 정말 대가를 치를 거다", "다시는 감옥에 안 간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브라운은 약물 검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는 또한 과거 살인을 저질렀고 "잡히지 않은 살인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담당관은 브라운의 모습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경찰에 보냈고 브라운은 통화를 끊었다. 가석방관이 자택에 도착했을 때 브라운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얼마 후 브라운은 다시 가석방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타일러 브라운이 아니다. 자신의 '슈터 네임(shooter name)'을 쓰고 있다"고 말한 뒤, 계속해서 총을 흔들며 자살 시사 발언을 이어갔다.

경찰, 위치 추적했지만 1km 반경 안에서 따라잡지 못해

이후 73분 동안 보스턴 경찰은 브라운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미비

밀경호국이 케임브리지 반경 1,000미터 안에 브라운이 있다고 위치를 좁혀줬다. 보스턴 경찰은 오후 1시 6분경 케임브리지 경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오후 1시 21분경 매사추세츠 가석방 부서가 추가 영장을 통해 브라운의 위치를 케임브리지 켈리 로드 51번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더 좁혔다. 그러나 첫 총성이 약 0.5마일(약 800m) 떨어진 808 메모리얼 드라이브에서 울려 퍼진 것은 그로부터 약 9분 뒤인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

총격이 벌어지는 동안 한 여성 운전자는 "총알이 차의 뒷부분을 뚫고 들어와 자신의 재킷을 스치듯 지나간 뒤 앞 유리를 관통했다"고 진술했다. 인근 주유소 직원들은 몸을 숨겼고, 리버마크 아파트먼트 주민들은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거나 영상을 촬영했다. 사건 현장 인근 거주자 세븐 스파크스는 "총소리에 몸을 숙여 피하려 했다. 일부 총알이 주유소에 맞았다"며 "총격범이 총을 공중에 흔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소리쳤다"고 전했다.

총상 입은 두 피해자, MBTA 버스 기사와 도어대시 배달원

생명이 위태로운 부상을 입은 피해자 두 명은 모두 차량 안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한 명은 MBTA 버스 기사였고, 다른 한 명은 도어대시 배달원으로 가족이 현장에서 WBUR에 신원을 확인해줬다. 한 피해자는 카시미르 방구라(Casimir Bangoura)로, 삼촌 수피아나 옴부노

〈전체 기사 읽기〉

(Soufiana Yombuno)는 그가 동네 세차장으로 가던 중 빗발치는 총탄에 맞아 차량 통제력을 잃었다고 전했다. 옴부노는 "하느님께 감사하다. 그가 살아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매사추세츠 주 경찰관 랜던 베니 순경과 무장 시민 1명의 대응 사격에 팔다리 여러 군데 총상을 입고 제압됐다. 두 사람의 대응 사격으로 사건은 단 몇 분 만에 끝났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시민은 전직 미 해병대원이자 과거 사격 교관이었다. 그는 당시 메모리얼 드라이브 남쪽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으며, 차량 뒷좌석 총보관함에 9mm 글록 권총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는 브라운이 베니 순경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을 본 뒤 권총을 꺼내 8발을 발사했다. 이웃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총에 맞은 브라운이 바닥에 쓰러진 뒤 누운 채로 총을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0년 경찰관 살해미수 '관대한 형량' 다시 도마 위

이번 사건으로 2021년 브라운에게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 매사추세츠 사법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브라운은 2020년 5월 보스턴 사우스엔드에서 보스턴 경찰관 4명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검찰이 10~12년형을 권고했음에도 서퍽 고등법원(Suffolk Superior Court) 제 닷 샌더스 판사는 5~6년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브라운은 지난해 5월 MCI 셸리(MCI Shirley)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양형 심리에서 보스턴 경찰

관 에드워드 게이틀리 3세는 격앙된 어조로 "브라운은 누구에게든 상처를 주는데 거리낌이 없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그가 풀려나면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증언하며 최고형 선고를 호소한 바 있다. 샌더스 판사는 "수정 구술로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나의 직관이 옳기를, 그리고 당신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능력과 의지, 지원을 가지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레이철 롤린스 전 서퍽카운티 검사장은 5~6년 선고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보스턴경찰순찰대협회는 이번 사건 직후 X(옛 트위터)에 "5년 전 사법체계가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것은 정신 나간 짓이며, 매일 목숨을 거는 이들에게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장 래리 칼더론은 "이 사람은 거리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와 무고한 사람들에게 공경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12일 성명을 통해 "메모리얼 드라이브의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한 가운데서 주 경찰관들과 응급 대응 인력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향해 달려갔다"며 응급 대응 인력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전직 해병대원에 사의를 표했다. 힐리 주지사는 또한 이번 사건이 지난 주 역주행 운전자에 의해 매사추세츠 주 경찰관이 순직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한 점도 언급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2026 NE DRAWING CONTEST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오크힐 파크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오후 2시 (접수) ~ 5시 30분 (시상식 포함)
- 신청 및 마감: **5월 17일 (일) 마감**
- 참가비/1인: \$10 (회원 한국학교 학생)/등록 마감 후: \$15
- 참가비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
(수표는 KSA-NE 로 작성)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https://forms.gle/ZnE3Wya5Ti2mzkzC8>

<1>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11학년)

<2> 참가부문: 크레용, 색연필, 그림물감 등 자유롭게 선택
(유화 제외/콜라주 제외 - 풀, 가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제출 불가)

<3> 시상 및 심사위원: Pre Kinder부터 11학년까지의 학년 별 시상

- 1.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 2.K-11학년: 각 그룹 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3.감독/심사 위원: 미술 전공한 분으로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4.그림 주제는 당일 선택하여 알림

<4> 준비물 및 협조 부탁 (물감, 크레용 사용이 가능한 종이는 협의회에서 준비)

- 1.물감, 크레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 합니다.
- 2.야외에서 진행시 보드 또는 이젤 및 돛자리(또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5> 각 학생/가족 별로 준비할 사항

: 기본 구급용품과 선크림·모자·모기약을 준비하고, 공원에서는 취사(그릴·불 사용)가 금지되므로, 간식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며 쓰레기는 행사 후 직접 수거합니다.

<6> 행사 당일 또는 전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가 심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신청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 2:00-2:30 접수
- 2:30-3:00 개회식 및 주제 선정
- 3:00-3:10 대회장소 이동
- 3:10-4:10 대회
- 4:10-4:40 심사
- 4:40-5:30 시상식 및 폐회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 **코리아**



보스턴 고급 한식 고기구이집 '진지' 오픈...메뉴 · 가격 · 주문법 총정리

▶▶1면에 이어서

없다. 진지는 붉은 고기와 어울리는 와인은 물론 한국의 고급 소주인 화요를 비롯해 일반 소주 등을 구비해 놓고 있으며 생 막걸리와 복분자 주도 선택할 수 있어 준비해 한국에서 고기를 먹는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사포로, 샘아담스 등의 생맥주도 준비되어 있다.

고기와 함께 고급 소금, 표고버섯, 와사비장, 절임생강 등이 제공된다. 기본찬으로 나오는 새우젓, 오징어젓, 구운 파프리카를 섞어 만든 진지 파우더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이 풍부해진다.

메인 메뉴 전 애피타이저로는 육회(24 달러) 또는 육전(24 달러)을 선택할 수 있다. 고기를 먹고 난 후 들기름, 비빔, 물막국수(각 12달러), 고추장찌개, 된장찌개(각 12달러) 등을 선택해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진지는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원하는 식사시간보다 조금 일찍가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게 좋다. 진지 운영진은 조만간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스턴은 블랜차드(Blanchard)

주류판매점 옆쪽 공영주차장 또는 거리주차와 특별한 대형 주차 공간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차로 방문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곽주현 사장은 지난 1월 보스턴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시고 가고 싶은 식당”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월 곽 사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지켰죠?”라며 웃음을 지었다.

진지의 경영진은 산바다에 이어 진지까지 성공을 거두며 보스턴에서 새로운 한식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보스턴을 넘어 미국의 새로운 외식산업의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바다는 주말의 경우 오픈시간부터 마지막 주문까지 모든 테이블이 만석과 웨이팅을 기록할 정도다. 이로 인해 야간에 포차 형식으로 운영하려던 밤바다는 아직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름 이후에나 재오픈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년이 넘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한식 메뉴 개발, 운영 시스템 구축



을 거친 이들의 행보는 한식당도 이제 감각과 경험을 넘어 기업 경영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곽주현 사장은 “진지와 산바다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해 함께 노력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많이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정

보는 보스턴코리아 구인란을 참조하면 된다. 진지는 165 Brighton Ave., Allston, MA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ne.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한국 서예의 대가들 보스턴에 집결...백우동인회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50주년 기념전

▶▶1면에 이어서

관의 반세기를 한자리에서 기념하는 보스턴 초대전이 성사됐다.

이번 전시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 인사회에서 한 세대 반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뿌리를 지켜온 한국 학교와, 같은 시간 동안 한국 전통 서화의 정신을 이어온 백우동인회가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해외전에는 모두 18명의 작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한국문화협회 부이사장과 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인화 강사를 역임한 김정규 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및 심사위원을 지낸 김장호 작가, 보병11사단 예술 서예대전 금상과 윤산서장배 서예대전 입선 경력의 최덕봉 작가, 대한민국서예대전 우수상 및 초대작가인 박순아 작가, 다수의 그룹전과 초대전에 참여한 강해중 작가 등이 참여한다.

또 김부길 작가, 대한민국공무원 미술대전 입선과 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이영길 작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서예교사로 20년간 봉직하며 2024년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한 정성렬 작가, 이강식 작가, 건축사 이영운 작가도 작품을 냈다.

이밖에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

원과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최석찬 작가, 서울대학교 미술품보존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서울대·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학과 초빙교수를 지낸 이승우 작가, 김숙희 작가, 진주공예인협회 회원 이현자 작가, 한국형염인협회장 류오동 작가, 정복순 작가, 문학박사 이영숙 작가, 정연우 작가, 허진영 작가, 초크아트·디자인아트·캘리그래피 강사 장현숙 작가도 함께한다.

출품작의 폭도 넓다.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를 망라한 정통 서예부터 한글 시서, 사군자, 문인화, 전통 한복 인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 예술의 다양한 흐름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장호 작가의 ‘고린도전서 일절’, 최덕봉 작가의 ‘그리움’, 박순아 작가의 ‘황국’, 강해중 작가의 ‘설풍고송’, 정성렬 작가의 ‘丹心’, 이영운 작가의 ‘아미산-경복궁 교태전 후원’, 김부길 작가의 ‘유치환의 바위’, 이영길 작가의 ‘정지용 시 향수’, 류오동 작가의 ‘아청색 당의’, 최석찬 작가의 ‘아리랑’, 이현자 작가의 ‘매화가 필 때면...’, 정연우 작가의 ‘세상에 서 가장 소중한 것’, 김숙희 작가의

‘그리움’, 이승우 작가의 ‘무불형통’, 이영숙 작가의 ‘호수’, 허진영 작가의 ‘요기추자국’, 장현숙 작가의 ‘집, 두고 온 정’, 정복순 작가의 ‘봄바람’ 등이 보스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은 대부분 한국 서단에서 현직 작가로 활동 중인 중진·원로들이다. 작품 출품과 별도로 김정규, 김장호, 강해중, 김부길, 이영운, 김숙희, 장현숙 작가 등 7명은 직접 보스턴을 방문해 관람객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서예와 문인화의 중견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번 동인전의 보스턴 유치에는 정성렬 작가의 역할이 컸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서예교사로 20년간 봉직해 온 정 작가는 한국학교와 백우동인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정 작가는 “보스턴 전시가 성사되기까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남일 교장 선생님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셨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백우동인회 국내전은 지난 4월 3일부터 9일까지 경남 진주시 남강로 11에 위치한 울트라블루 갤러리에서 열렸다.

서예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시·서·화 가운데 ‘서’를 담당하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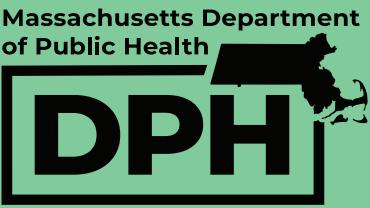
신 수양과 조형예술이 결합된 장르로 자리 잡아왔다. 한자를 바탕으로 발전했지만 조선 후기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를 거쳐 독자적 흐름을 형성했고, 광복 이후에는 한글 서예도 중요한 한 축으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는 한문 정통 서체, 한글 서예, 사군자, 문인화, 전통 공예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전통 예술의 흐름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ditor@bostonkorea.com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알파벳, AI 시대 최대 승자 되나...1년 새 주가 160% 급등

엔비디아 시총 한때 추격...칩·모델·클라우드·유통망 모두 가진 '풀스택 AI 기업' 부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최대 승자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약 160% 급등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시간외거래에서 한때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다.

5월 13일 기준 알파벳의 시가총액은 약 4조 8천억 달러로, 약 5조 2천억 달러인 엔비디아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를 가장 빠르게 추격하는 기업이 누구냐”는 질문에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알파벳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승세는 가파르다. 알파벳 주가는 최근 6개월 사이 약 40% 이상 상승하며 주요 빅테크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월간 상승률이 2004년 상장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때 시장은 AI 경쟁에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고, 구글은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월가는 이제 구글이 AI 산업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갖춘 드문 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체 기사 읽기〉

딥위터자산운용의 진 먼스터 매니징파트너는 “구글은 현재 가장 잘 자리 잡은 AI 기업 가운데 하나”라며 “칩, 모델, 인프라, 유통망까지 거의 모든 요소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구글은 자체 AI 모델인 제미니(Gemini), 연구 조직 딥마인드(DeepMind), 클라우드사업부, 자체 설계 AI 반도체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검색엔진, 유튜브, 안드로이드라는 글로벌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어 AI 기술을 실제 사용자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유통망도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풀스택 AI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AI 모델만 가진 회사도 아니고, 칩만 만드는 회사도 아니라는 뜻이다. AI 데이터센터부터 반도체, 클라우드, 소비자 서비스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 구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실적도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1,09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63% 급증했고, 클라우드 영업이익은 22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무엇보다 시장이 놀란 부분은 클라우드 수주잔고였다. 앞으로 들어올 계약 물량을 의미하는 수주잔고는 약 4,620억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실적 발표 이후 JP모건은 알파벳을 기술업종 ‘최선호주’ 가운데 하나로 꼽았고, 미즈호는 “월가가 구글 클라우드의 향후 성장성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려도 있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 수주 증가의 상당 부분이 AI 스타트업 엔트로픽(Anthropic)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엔트로픽은 오픈AI의 경쟁사 가운데 하나로, 기업가치는 매우 높지만 아직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다. 구글은 엔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엔트로픽은 다시 그 자금 상당 부분을 구글 클라우드와 TPU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보도된 계약 규모는 약 2천억 달러 수준이다. 5년 동안 약 5기가와트 규모의 AI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알파벳 전체 클라우드 수주잔고의 40%를 넘는 규모다.

D.A. 데이비드슨의 길 루리아 분석가는 이 구조가 지난해 오라클 사례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오라클은 수주잔고 급증 발표 이후 주

가가 폭등했지만, 이후 증가분 상당수가 오픈AI 한 곳에서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루리아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아마존, 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주잔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결국 오픈AI와 엔트로픽이라는 두 AI 기업에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반면 낙관론도 강하다. 먼스터는 “이 계약은 오히려 AI 산업이 얼마나 초기 단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현재는 활용 사례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컴퓨팅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설령 엔트로픽이 실패하더라도 결국 그 자리를 채울 AI 기업들은 수십 곳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의 또 다른 무기는 자체 AI 반도체 TPU다. 현재 AI 시장은 엔비디아 GPU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 TPU는 엔비디아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즈호는 2027년까지 알파벳 클라우드 수주잔고 가운데 약 610억 달러가 TPU 관련 매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근 AI 인프라 투자 기대감 속에서 AMD, 인텔, 마이크로 등 반도체 기업 주가도 큰 폭

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루리아 분석가는 “구글과 아마존이 강조하는 자체 칩 수요 가운데 상당 부분은 외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투자한 AI 기업들에서 나오는 수요”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 규모를 최대 1,900억 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2주 앞으로 다가온 구글의 연례 개발자 행사 ‘구글 I/O’를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구글이 제미니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전략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할지, 그리고 AI를 실제 수익 모델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고 있다.

AI 시대의 승자가 단순히 ‘좋은 모델’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칩·데이터센터·클라우드·서비스·사용자 플랫폼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월가는 지금 알파벳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케임브리지 아카마이, 엔트로픽과 18억 달러 클라우드 계약... 주가 27% 급등

7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 회사 사상 최대 계약... AI 컴퓨팅 수요 폭증, 매사추세츠 IT 산업에도 호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인터넷 인프라 기업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Akamai Technologies, 티커AKAM)가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18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 계약을 인공지능 회사 엔트로픽과 체결했다. 발표 당일 주가가 27% 급등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익명 소식통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7년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Cloud Infrastructure Services, CIS)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아카마이는 7일 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선도적 프런티어 모델 제공사(leading frontier model provider)”와의 18억 달러 장기 계약 체결을 밝히면서도 상대 회사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8일 블룸버그가 그 상대를 엔트로

〈전체 기사 읽기〉

픽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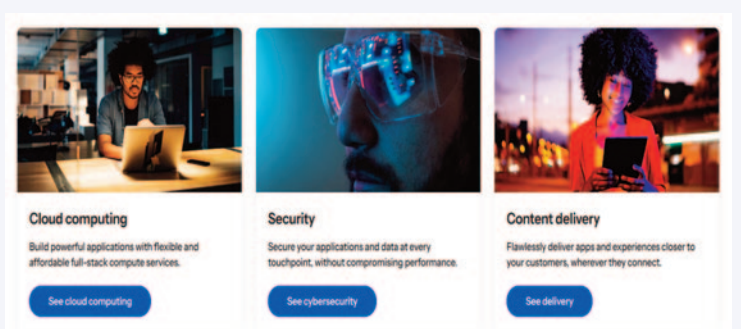
아카마이 주가는 8일 27% 급등한 148.38달러로 마감했다. 지난 12개월간 주가 상승률은 65%에 달한다. 엔트로픽은 비상장 회사다. 양사 모두 이번 보도에 대한 공식 논평은 거부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엔트로픽이 만드는 AI 챗봇 클로드(Claude)의 폭발적 수요 증가가 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는 이번 주 한 콘퍼런스에서 “올해 1분기에 연산 매출과 이용량이 80배(80x) 성장했다”며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딩 자동화 등 다양한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엔트로픽이 모

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GPU와 데이터센터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엔트로픽은 아카마이뿐 아니라 알파벳(구글)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SpaceX)와도 AI 칩·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잇따라 맺었다. 이번 주 초 발표된 스페이스X 계약은 엔트로픽이 한때 머스크와 거리를 두던 관계에서 화해의 신호로 해석됐다.

아카마이로서도 의미가 큰 계약이다. 회사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와 사이버보안 사업에서 나오지만,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으로의 확장에 사활을 걸어왔다. 1분기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CI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보안 사업도 11% 성장했다. 톰레이튼 아카마이 CEO는 실적 발표에서 “이번 18억 달러 계약은 AI 경제에서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우리



의 위치를 한번 더 입증한다”고 말했다.

레이튼 CEO는 또한 “부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아카마이는 CPU와 GPU 등 모든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할 좋은 위치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기업 뉴스를 넘어 매사추세츠 IT 산업 전반에도 희소식이다. 1998년 MIT에서 분사해 케임브리지에서 출발한 아카마이는 그동안 캔달 스케이 주변의 새로운 AI·바이오 스타트업 열풍 속에서 다소 그늘에 가려진 기업으로 평가받아왔다. 2024년 11월에는 인

력 감축을 단행하기도 했다. 그런 회사가 AI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매사추세츠가 AI 산업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신호로 읽혀진다.

또한 거대 클라우드 회사들(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이 용량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아카마이 같은 ‘대안 클라우드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월스트리트의 아카마이 주가 평가는 매수 11개, 보유 7개, 매도 2개로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 아파트 렌트 매물 10년 만에 최다... 세입자 선택지 넓어졌다

청년층 이탈과 유학생들의 감소가 원인으로 주목
평균 렌트 가격 3,400달러로 상승세 둔화
"전국에서 가장 빠듯한 시장, 여전히 집주인 우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보스턴 지역의 아파트 렌트 매물이 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드물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 다만 보스턴 렌트 시장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빠듯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매물이 늘었어도 집주인 우위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보스턴닷컴이 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톰슨 부동산 소속 부동산 중개인이자 그레이터보스턴부동산중개인협회 차기 회장인 제이미 톰슨은 "아마 10년 만에 가장 많은 렌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톰슨 회장은 최근 세입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으며, 매물도 이전보다 조금 더 오래 시장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단순히 가격뿐 아니라 편의시설과 조건을 비교하며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그는 "보스턴 시장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집주인 우위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보스턴 렌트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실시간 렌트

가능율(Real-Time Availability Rate)이다. 이는 현재 비어 있거나 곧 임주가 가능해질 주택의 비율을 뜻한다. 보스턴패즈에 따르면 올해 봄에는 통상 4월 중순 이후 빠르게 소진되던 매물이 4월 말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다. 5월 들어 학생 졸업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매물은 더 늘어났고, 보스턴의 렌트가능율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45%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다. 보스턴패즈 실시간 자료에 따르면 보스턴 평균 렌트 가격은 3,400달러로, 한 달 전보다 0.23% 낮아졌지만 1년 전보다는 2.53%, 2년 전보다는 4.13% 올랐다. 다만 데메트리오스 살포글루 보스턴패즈 최고경영자(CEO)는 집주인들이 대규모 보수나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올해 렌트 가격이 크게 더 오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집주인들도 올해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매물 증가의 배경으로는 여러 요인이 거론된다. 살포글루 CEO는 국제학생 감소, 경기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확산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



능성으로 들었다. 그는 또 서블렛의 매물 증가가 실직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그레이터 보스턴상공회의소재단이 발표한 청년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20~30세 청년 가운데 26%가 향후 5년 안에 보스턴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한 가운데 렌트 가격 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청년층 이탈과 국제학생 감소가 동시에 수요를 줄이면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톰슨 회장은 집주인들이 높은 비율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있고, 많은 세입자가 고용 불안과 생활비 상승, 높은 유틸리티 비용 때문에 이사를 미루고 기존 주택에 머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

명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렌트 가격과 시장 매물 가격을 비교해 보면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급 증가도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톰슨 회장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약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건설 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상태다. 새 아파트가 예정대로 시장에 나오면 오래된 2구·3구 주택이나 낡은 벽돌 건물의 렌트 가격에는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결국 핵심은 재고"라며 새 건물이 제공하는 편의시설 때문에 일부 수요가 기존 주택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기숙사 확충도 학생 렌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스이

스턴대는 새 기숙사를 짓고 있으며, 터프츠대도 새 학생 주거시설을 건설 중이다. 대학들이 더 많은 학생을 교내에 수용하게 되면, 학생 수요에 의존해온 일부 아파트 렌트 시장은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세입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보스턴의 주거비 부담이 근본적으로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모기지 금리가 여전히 6% 안팎에 머물면서 많은 주민에게는 주택 구입보다 렌트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 있다. 톰슨 회장은 "콘도가 이제 첫 주택 구입자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ditor@bostonkorea.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턴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02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1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해돋는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14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15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1,14,15,23)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다. 예배는 형식과 순서가 아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의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

시다.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드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내가 네 수소나 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감사의 예배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예배이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예배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

은 더욱 강하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입술은 거룩하지만 삶은 거짓된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앙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그대로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는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준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다. 둘째, 행위가 바른 사람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한다.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이다. 직장에서의 태도, 가정에서의 모습,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예배이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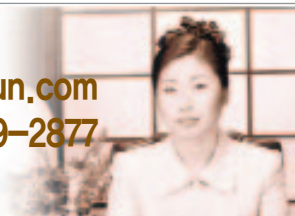
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 삶이 바른 사람(정직한 사람)이다. 예배는 삶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너의 예배는 진짜냐?” 하고 말이다. 노래는 잘 하지만 감사는 없는가?,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묻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다. 감사가 있는 예배, 진실이 있는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를 위해 순종하는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가 되길 오늘도 또 기도한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이길 기도한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길 기도한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이길 오늘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5월 17일 - 5월 2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 운수: 어수선하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전: 조금만 신경 쓰면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미리 발견할 수 있으니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 애정: 가족 간의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소띠 | 애정이 샘솟는

● 운수: 이제는 노선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걸어오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 금전: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거래처도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지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들릴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길일. 18, 21일 주의.



범띠 |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 운수: 정확한 사태파악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빨간 신호 등으로 바뀔진지도 모르고 건너가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내 뜻과는 반대로 가기 쉽습니다. 잘되겠지 믿거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미리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 애정: 너무 깊이 알고려 하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알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토끼띠 |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 운수: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신통치 않은 매출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힘들수록 환하게 웃어야 밝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 애정: 하루라도 빨리 관계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대로 질질 끌려가다가는 결국 상처만 커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7,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용띠 | 한 걸음 내딛기 전에

● 운수: 적진인지도 모르고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미리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아무리 급하더라도 미리 만약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게 되는 것보다 알게 되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2, 23일 길일. 19, 21일 주의.



뱀띠 |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

● 운수: 어느 날 급작스럽게 사고가 찾아오듯이 인생을 바꿀만한 천금 같은 기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 금전: 매상이 떨어져서 고민하던 사람도 돌아오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얼굴이 밝아 집니다.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 애정: 일과 사랑을 동시에 얻게 될 것입니다.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0, 23일 길일. 19, 22일 주의.



말띠 |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 운수: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의 이익보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면 결국은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 애정: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누구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0, 21일 길일. 17, 23일 주의.



양띠 | 열린 마음으로

● 운수: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결코 배반하지 않는 좋은 결과로 답해줄 것입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더욱 더 가까워집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원숭이띠 | 선 굿기를 잘해야

● 운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빼놓고 다닐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선긋기를 잘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무르게 대응하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 애정: 부부문제나 이성문제에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말해서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8, 23일 길일. 17, 19일 주의.



닭띠 |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 운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일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조금만 발품을 팔면 좋은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활동에 박차를 내보세요. 모처럼 여유 있게 웃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꼭 만나야 될 인연을 하늘이 묶어줄 것입니다. 우연보다 더 강한 필연적인 느낌을 주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개띠 |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 운수: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도 때가 아니면 잘되지 않고 지치기만 합니다. ● 금전: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 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 애정: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게 설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돼지띠 |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 운수: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면 빨리 쉬거나 약을 복용하세요. 무리하고 버티다가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금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삶이 알려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애정: 좋은 이미지를 쌓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매사에 자신을 잘해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자임을
선언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문수사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나누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인연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장소 : 231 Salem St. Wakefield, MA 01880
문의 : 781) 224-0670



봉축위원회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 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엄지발가락 변형 질환으로 치료를 미루면 발 전체까지 변형되어 걸음걸이도 틀어지는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 원우과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고 발 안쪽 뼈가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다. 초기에는 돌출 부위의 통증과 발적, 굳은 살 정도에 그치지만, 방치하면 두번째 발가락까지 변형되고 지간신경증, 무릎과 골반의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신발을 신기 어려울 때, 변형이 계속 진행될 때, 보존치료 효과가 없으면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과거 무지외반증 수술은 피부를 5~10cm

가량 절개하고 뼈를 깎아내는 방식으로 조직 손상이 커 회복이 오래 걸렸다. 이후 등장한 2~3세대 최소침습 수술은 절개 범위는 줄였지만 고정이 약해 재발 위험이 있고 보행하기까지 회복 시간이 길었다. 반면 최근 학계에서 나온 4세대 최소 절개 고정술(MICA)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무지외반증 수술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은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약 2mm 내외의 작은 구멍을 통해 미세 절삭기를 삽입해 뼈를 절골한 뒤, 특수 나사로 이중 고정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절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개방형 수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견고한 고정력을 확보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휘는 것뿐만 아니라 뼈 자체가 안쪽

으로 회전하는 변형을 동반한다.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실시간 영상 장치를 통해 뼈의 회전 변형까지 정밀하게 잡아낸다. 이는 수술 후 발의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무지외반증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재발률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정형외과 족부센터 이원우 과장은 “무지외반증은 매우 흔하지만 기존 수술 방식의 긴 회복 기간, 통증으로 많은 환자가 수술을 망설였었다.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2~3mm의 작은 구멍 3~4개만으로 수술하므로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통증 및 합병증을 크게 줄였다”며 “한지는 수술 다음 날부터 특수 신발을 착용하고 보행이 가능하며 입원 기간도 2~3일 정도로 짧다”고 강조했다.

이원우 과장은 “4세대 최소 절개 수술은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수술법이기 때문에 수술 전, 정밀한 방사선 분석은 물

론 해당 기법에 대해 충분한 임상 경험을 갖춘 족부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 치료 미룰수록, 발 전체 변형에 걸음걸이도 틀어진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가정의 달 마음에 **정** 있어요

가정의 달 행사

4월 17일 ~ 5월 17일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JUNG KWAN JANG

에브리타임 증정	천녹류·달임액류 할인
\$2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10포 증정	10% 추가 할인 멤버스 ONLY 중복 적용 가능
\$3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20포 증정	
\$4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30포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제공**
*조기 소진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43) 평생 일해도 가난한 이유, 단 하나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고, 자녀 교육에도 최선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재정적인 여유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경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함께 커진다. 엔비디아, 삼성,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성과는 주식시장에 반영된다. 이때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 성장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공유하지만,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게 된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점점 더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늘어나면서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소비를 늘리며 삶의 여유를 누

린다.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환경 속에서도 더 큰 불안과 부담을 느낀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소비와 자신감이 함께 커지는데, 이를 ‘부의 효과(Wealth Effect)’라고 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자산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상위 약 10% 계층은 그 아래 모든 계층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 중 약 31%는 주식에, 또 다른 11%는 401(k)이나 IRA 같은 은퇴 계좌에 투자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보유한 주식 비중은 지난 3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상위 20%가 전체 주식과 펀드의 약 87%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수록 이들은 더 빠르게 자산을 늘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결국 부의 차이는 소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느냐에

서 비롯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테런스 오딘과 브래드 비버 교수가 6년 동안 6만 명의 개인 투자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활발하게 매매한 상위 20%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하위 20% 투자자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연간 약 6.5%포인트에 달했다. 즉, 더 많이 사고팔수록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움직이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실제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진다. 지난 10년(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동안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4.8%였다. 만약 10만 달러를 투자해 아무런 매매 없이 그대로 두었다면, 그 자산은 약 4배 가까이 불어났을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단지 시장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결과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은 여전히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한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 언제 들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타이

밍을 맞추려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투자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다. 시장을 맞추려는 순간, 결과는 운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에서 부를 만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 방법 역시 복잡하지 않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며, 무엇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강력하게 작용한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그 무게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혹하다. 조기 은퇴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소득 없이 30년에서 길게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내야 한다. 이 시간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노후는 불안과 결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철학으로 시장의 성장에 동참한 사람만이 그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누릴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2026년 이만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만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인류연재] 달리기와 영영

해마다 오월이면 동네 호숫가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린다. 이전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 남은 가족들이 주최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올해로 어느덧 다섯 살이 된 'Emma's Run'. 달리기 대회 첫 해엔 엠마 아빠가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쥔 두 손을 끊임없이 떨었다. 그 바람에 그의 온몸이 다 휘청였다. 그렇게 흔들리는 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죽은 엠마를 추억하며 우리에게 감사하다 인사했다. 하지만 올해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림 그리기와 달리기를 좋아한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을 향해 외쳐서 고맙다며 웃었다.

남편과 같이 아들을 구슬려 이번 달리기 대회에 셋이 참가했다. 대회를 앞둔 밤 초등학교 아들한테 질까 봐 초조하다고 침대에 누운 남편이 말을 꺼냈다. 겨울을 지나 오는 동안 거의 매일 추위에 벌 받듯이 달려왔지만 달리는 거리는 차마 늘리지 못해 뛰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단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남편은 아들한테 처참히 패배하기를 기대했다. 아이가 제대로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다면서 말이다. 아무려나, 나는 남편

목소리 배경음 삼아 두 사람의 등짝만을 바라보며 달리다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맹렬한 속도로 모두를 추월할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들을 남편과 나 사이에 세워두고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출발선에 모여 선 여러 달리기 클럽 회원들의 유니폼과 수많은 개인들의 형형색색 운동화를 구경한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5마일만큼의 거리와 시간을 달려 부재로 존재하는 엠마의 영원을 세어볼 것이다. 그리고 보니 지난밤 집안에서의 우리는 엄마, 아빠, 아들이 다 같이 달릴 수 있는 우리 생의 활기에 몰두해 이 대회가 왜 생겨났는지를 잠시 잊고 말았다. 출발을 알리는 엠마 아빠의 웃는 목소리가 사이렌과 함께 메가폰을 울린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아스팔트길에 두 발을 구른다.

어떤 추모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낸다. 완주의 환희까지 동반한다.

남편은 아들의 페이스가 되어 달린 뒤 결승선 안으로 아들을 먼저 들여보냈다. 나는 일찍이 두 사람의 뒷모습과 멀어져 천천히 홀로 완주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 조수석에 앉아 땀에 젖은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는다. 엠마 아빠의 웃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 웃음은 영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에도 시간이 약이라 그렇다기 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방법을 어떻게든 터득할 수 있어서라고 믿게 한다.

STAGE
KARAOKE X STUDIOS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MAIN STAGE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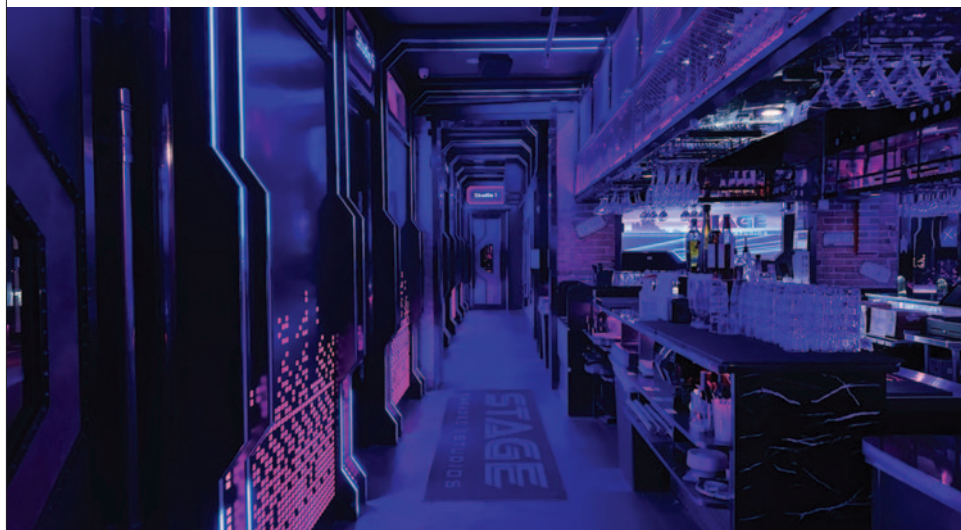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지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wing 등 음식 서비스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 건강 컬럼 (1)

- 간호사,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번 달부터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간호사의 역사와 교육 과정,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문 간호사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간호는 오래전 가족이 아픈 이를 돌보던 것에서 시작되어, 19세기 Florence Nightingale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오늘날의 전문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의료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02년 간호법이 제정되며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는 간호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단순한 임상 업무를 넘어 행정가, 교육자, 연구자, 그

리고 보건의료 리더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는 길은 다양합니다. 4년제 간호대학(BSN) 또는 2년제 간호 과정(ADN)을 졸업한 후 면허 시험(NCLEX-RN)을 통과하면 간호사가 될 수 있으며, 비간호 전공 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에는 Accelerated 과정 이수 후 면허 취득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간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 시험과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회복 과정을 함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보람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근무 형태는 일반 직장과는 다소 다릅니다. 미국의 많은 병원은 12시간 교대 근무(주·야간)를 운영하고 있어 주 3~4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근무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평일에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개인 시간을 비교적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는 동기는 다양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경험을 계기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의 미래를 고려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신뢰받는 직업군 중 하나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문 간호사(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APRN)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기반으로 추가 자격을 취득한 전문 간호사는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보다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

며, 일부 주에서는 독립적인 의료 제공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는 2007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한인 간호사들의 교류와 지원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 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지식 공유와 국내외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호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협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간호사 뿐 아니라 한인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의 활동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koreannurses.or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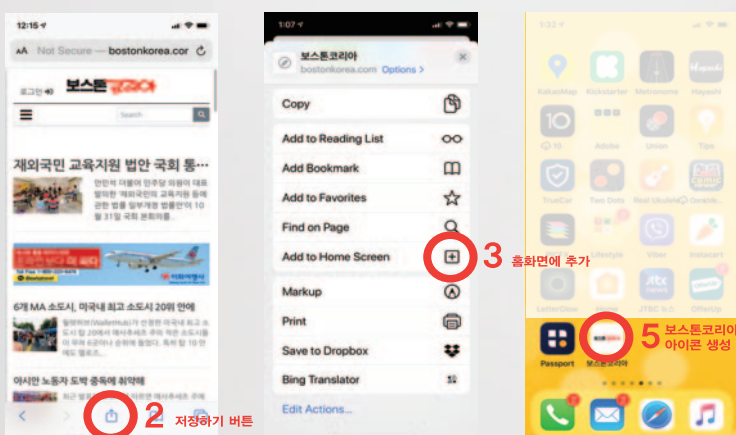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Film

UNIQLO Festival of Films from Japan

▶ 5/8—5/29



Special Event

\$5 Third Thursdays

- ▶ Thursday 5/21
- ▶ \$5 admission after 5 pm

Free Admission

Memorial Day

- ▶ Monday 5/25
- ▶ Includes special exhibition "Framing Nature"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50th Anniversary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백우회 창립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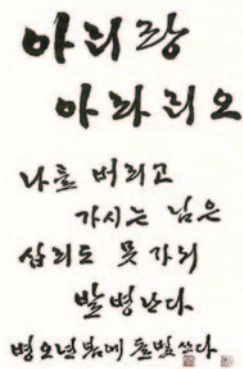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초대

배우동인천

Baekwoo Alumni Art Exhibition: Calligraphy and Bey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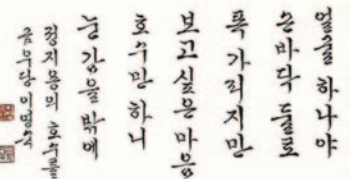
김장호 | 고린도전서 임절 | 28·60cm



최석찬 | 아리랑 | 27×40cm



이승우 | 무불형통 | 45x35cm



이영숙 | 호수 | 35×37cm

2026. 5. 25. MON - 29. FRI

St. Paul's Episcopal Church :

15 St. Paul Street, Brookline, MA 02446

2026. 5. 30. SAT

뉴잉글랜드 한국학교(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